

쉽게 가는 정보체계론 **최승호** 강의계획서

2순환 핵심 미션 : “핵심 주제를 통한 연결하기”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체계론 전체 흐름과 내용 잡기 -

■ ■ 담 당 최 승 호

■ ■ 강의일정 2018년 1/8(월) ~ 1/13(토), 총 6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 1) 시험이 없는 날 : 1시 40분 ~ 5시 10분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10분

■ ■ 강의교재 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관련자료(매일 학원 배포)
2. 쉽게 가는 정보체계론 단권화 자료집(예비순환 및 1순환 교재와 동일, 제본교재, 실비제공)
※ 기출문제 패턴분석을 통해 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권화 자료집

■ ■ 강의목표 1. 수험 정보체계론 접근방법의 기본(ABC) 잡기!
1) 1단계 : 흐름 이해를 통한 주소 확인(Address)
2) 2단계 : 내용 정리와 사례 적용을 통한 블록 완성(Bloc)
※ 블록(Bloc)은 정보체계론의 수평 흐름과 수직 흐름을 이어주는 교량
3) 3단계 : 답안 작성을 통한 문장구성 연습(Construction)
2. 수험 강의의 기본(강사와 수강생의 협업) 찾기!
1) 강사의 명확한 방향제시와 수강생의 의미 있는 노력이 결합되어 최대의 시너지를 가져 오는 협업지향적 수업운영
2) 아직 5급 공채시험의 전체적인 공부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개인상담 진행

■ ■ 공부방법 합격수기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구별되는 정치학(행정학, 정책학 포함)의 특징은 이해보다는 훈련과정이 더욱 어려운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시험공부는 일단 과목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해한 내용을 답안지에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 경제학과 행정법 두 과목은 훈련보다는 이해가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일단 이해한 후에는 답안을 정해진 방식대로 쓸 수 있어 답안 작성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과 같은 논문 과목들은, 반대로 내용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답안을 쓰는 것이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문제가 질문하는 방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하지만 비교적 넓은 틀 안에서 답안이 재량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목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무조건 많은 책과 논문을 읽어서 깊고 널리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읽은 내용을 답안으로 구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훈련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저 역시 글쓰기에 크게 소질 있는 편이 아니어서 답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1년 차에는 정치학과 행정학, 정책학의 모든 순환을 듣고 과목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행정학은 많은 사람들이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론으로 공부하기는 하지만 시험의 범위를 모두 다루기에는 부족했고, 정치학은 따로 정해진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최승호 선생님께서 나누어주신 논문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논문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로 노트에 정리하였고, 복습할 때는 수업노트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공부하였습니다. 필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논문을 다시 펼쳐서 필기 옆에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최승호 선생님께서는 나눠준 논문자료를 다 읽으라고 하셨지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음 수업시간까지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중요한 부분, 수업노트에 필기한 것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최승호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복습할 때는 기출문제를 옆에 두고 보면서, 이 내용을 어떤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지만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1년 차에는 그 말대로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단편적으로 보였고, 이 주제가 어디에 속하고 다른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주에 두 번 정도 기출문제 초안을 작성해보면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해보았는데 주소를 모르니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논리적 연결성이 빈약한 초안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2년 차가 되어 그 동안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였습니다. 배운 내용이 뭔가 뒤죽박죽 정리된 느낌이어서 1순환 동안 수업을 들으며 여태까지 순환별로 필기한 수업노트를 종합하여 하나의 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할 때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 과목의 선거부문을 정리할 때, 기출문제를 보고 투표행태나 선거제도 등으로 주제가 비슷한 문제끼리 묶은 다음, 문제들이 공통되게 묻는 것을 답안에 쓸 수 있는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을 보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나서 적합한 논문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할 때는 논문을 보며 답안에 쓰기 좋은 구절이나 통계수치, 학자 한마디를 옆에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까지 받은 논문의 부피가 커서 정리할 양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정리하고 보니 순환마다 (주제가) 겹치는 논문이 많아서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선택론이나 신제도주의 같이 사회과학의 공통된 학설들은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정책학 중 하나의 과목에서만 정리를 잘 해두면 되므로 정리할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학(행정학이나 정책학 포함)을 정리해두면, 첫째, 배운 내용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위치나 주제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게 되고, 셋째, 기출문제를 풀 때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므로 답안 구성이 쉬워지고, 넷째, 내용 암기가 보다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 차 2순환을 시작할 때 즈음 서브정리가 완성되어서 이후에는 서브만 보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서브에 정리된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답안을 구성하니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부가적으로 암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에는 매일매일 학원에서 답안을 썼는데, 1주에 두세 번 정도 답안에 대해 최승호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고, 돌아와서는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답안을 썼습니다. 답안을 다시 써보는 것은 3순환이 되어서야 처음 해보았는데 더 일찍 활용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답안을 반복적으로 써보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때 보다 깔끔한 논리로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최신 이슈들을 정리하고 암기하였습니다. 나의 경우 행정학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 부분이 최승호 선생님 논문 자료에 있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두었는데, 실제로 행정학 1문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제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주제, 국제정치학에서 미중관계 부분을 보다 심화하여 정리하였고, 정치학 1문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묻는 질문이 나와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강의 회차	날 짜	강의내용(※ 단일 주제가 아닌 복합 주제)
■ 제 1 회	1월 8일(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1
■ 제 2 회	1월 9일(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2
■ 제 3 회	1월 10일(수)	(제1회 모의고사) /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 1
■ 제 4 회	1월 11일(목)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 2
■ 제 5 회	1월 12일(금)	(제2회 모의고사) / 정보화의 어두운 측면 1
■ 제 6 회	1월 13일(토)	정보화의 어두운 측면 2

※ 수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